

전남도, 기업 1개 유치에 평균 3억8400만원

투자·고용 등 약속 꼼꼼하게 점검해야

시·군 편중지원 개선 대책도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280억여원의 세금을 들여 타 지역에서 73개의 중견기업을 유치했다. 1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평균 3억8400만원이 쓰인 셈이다. 일부 기업은 5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혜택이 큰 만큼 투자, 고용 등이 약속대로 실행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시·군 간 기업 유치 성과가 편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지난 2014년 각각 2곳, 28곳 등 30곳에서 올해 들어 지난해 말까지 각각 7곳과 36곳 등 43곳으로 늘었다. 이들이 받아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14년 32억4200만원(국비 24억3200만원), 2015년 166억5700만원(국비 113억39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14년 16억5100만원, 2015년 65억2300만원이다.

2년간 기업을 유치하는데 280억7300만원의 세금을 투입한 것이다. 최근 2년간 도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뒤 부도, 투자 지연 등의 '사고'는 없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지난 2013년

이후 지원 전 이행보증증권 발행, 근저당 설정 등 안전 장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도내 22개 시·군 모두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등을 이유로 기업 유치가 나서고 있지만, 중견기업 유치 성과는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운영됐고 상시고용 3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 입지비의 30%, 설비투자비의 14% 등이,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각각 10억원 이상, 정원의 10분의 1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증설비의 14%가 추가로 지원된다.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액은 60억원이다. 올 들어 순천 3곳, 광양 2곳의 기업이 각각 52억3700만원과 63억원, 영광과 화순에 각각 자리를 잡은 1개 기업은 43억5000만원과 7억7000만원을 받았다.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으로 나누는 도비보조금은 대기업 및 유치대상 전략기업에게 지급하고 있다. 특히 분양률이 낮은 목포대양산업단지 등 6곳의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분양가의 30% 범위 내(한도 3억원)에서 입지보조금을, 설비투자 2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최대 5% 범위 내(5억원)에서 시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신규채용 10명 초과 1인당 1년간 60만원(10억원), 정보기술업종은 5명 초과 1인당 반년간 50만원(5억원)을 지원해주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지나해와 올해 합평으로 이전한 41개 기업이 46억8700만원을 받아가 전체 도비보조금의 3분의 2를 가져갔다. 2년간 나주와 장성, 고흥 등이 3개 기업을 유치해 도비보조금 각각 4500만원, 1억6000만원, 2억8500만원 등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1~2곳에 그쳤다. 특히 담양, 강진, 해남, 신안 등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년간 단 1곳도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투자 및 채용 약속이 실행될 때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지역발전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갈수록 타 시·도와의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보조금액을 늘리는 등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상생의 길 개통 22일 오후 전남 함양 산삼골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바람개비를 거치대에 세워놓는 가운데 축하행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조동인 주민대표(영남), 박근혜 대통령, 배모니카 주민대표(호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대통령 "광주-대구 고속도로 영호남 화합 가교 역할 기대"

양복 2차선 88올림픽고속도로가 4차선 '광주-대구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됐다. 한국도로공사는 88고속도로 선형 개선과 4차선 확장공사를 마치고 22일 오후 3시 전남 함양 산삼골휴게소에서 개통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주영순·박주선 의원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장을 계기로 지역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지역 화합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협조한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부 내륙지역에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을 촉진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대 효과로 ▲매년 760억원 규모의 물류비 절감 ▲순천-완주·동영-대전 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전통산업·고유문화 발전·기어 등을 제시했다.

광주-대구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실시설계를 추진했고, 2008년 11월 확장공사에 착수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도로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함

천군, 고령군 등 8개 시·군을 관통한다. 총 사업비 2조1349억원을 투입,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확장에 따라 현재 하루 평균 1만3800여대인 통행량이 단계적으로 2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비용 절감에만 연간 760억원에 달하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는 더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도로폭이 좁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함양=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전북 익산 규모 3.9 지진 을 국내서 가장 큰 규모

기상청은 22일 오전 4시31분께 전북 익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3.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당초 기상청은 규모 3.5로 판정했지만 최종 정밀 분석한 결과 3.9로 규모를 상향했다. 이날 지진은 오전 4시31분 25초께 익산시 북쪽 9km 지역(북위 36.03도, 동경 126.96도)에서 발생했다.

올해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1월 8일 인천 연평도 남서쪽 18km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각각 발생했다. /연합뉴스

임내현 의원도 오늘 새정치 탈당

안철수 신당 합류 예정
장병완·권은희·박혜자 '고심'
광주, 강기정 홀로 남을수도



임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갈 것"이라며 "탈당 문제와 관련, 당원들과 막판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탈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장병완·권은희 의원도 이르면 연말, 늦어도 연초에 탈당이 나설 예정인

데다 박혜자 의원도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광주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전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들의 공천 문제에 대해 "총선공천과 거거(신당 합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며 "(신당) 안철수 개인의 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탈당에 이은 신당 합류가 공천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탈당 러시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해 첫 일출
무등산·향일암
7시 33분 ▶7면

광주일보신춘문에 1276편 응모 ▶17면

2015 광주·전남 10대 뉴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동정동) | Tel. 062)226-0001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영부권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00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C 200 Avantgarde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l (도시연비: 13.7km/l, 고속도로연비: 18.4km/l),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